



소무의도 정경



글라이더스 왕산 요트투어



윈더박스



대한항공회 강화성당

섬·역사명소·놀이공원서 즐기는 봄나들이... 곳곳서 특별한 '가족 이벤트'

무의·영종도서 '낭만힐링여행'... 인천조방·요트투어 인기
풍물시장·고려궁지등 강화도서 이야기가 있는 탐방여행
월미테마파크·영종씨사이드등서 자녀들과 짜릿한 추억도

인천관광공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천 여행지를 소개한다.
부모님을 위한 힐링 코스부터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와 액티비티까지, 세대별 맞춤형 여행지와 다채로운 축제가 인천 전역에서 펼쳐진다.

● 섬의 정취와 바다의 낭만을 즐기는 '무의·영종도'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무의도와 영종도는 해안 트레킹부터 요트 투어까지 바다를 배경으로 한 다채로운 힐링 코스를 제공해 부모님 동반 여행으로 제격이다.

영종도와 다리로 연결된 '무의도'는 호젓한 섬 분위기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곳이다. 서해의 알프스라 불리는 효동폭산부터 실미도, 인도교로 연결된 소무의도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특히 하나해수욕장의 해안데크길과 소무의도 '무의바다누리길'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 부모님과 함께 산책 코스로도 제격이다. '무의도 자연휴양림'에서는 숲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서해의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 하기에 좋다.

영종도의 새로운 힐링 명소 '인천조방'은 100여년 전 월미도 해수탕의 정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규모의 웰니스 스파 시설이다. 미네랄을 함유한 해수탕과 4가지 테마의 찜질방, 루프탑풀, 만화카페 등 다채로운 부대시설로 3배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특별한 추억을 원한다면 '글라이더스 왕산 요트투어'가 제격이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왕산·율왕리 해변 일대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최대 30명까지 탑승 가능한 퍼블릭 요트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으며, 특히 서해의 낭만적인 노을을 만끽할 수 있는 선셋 투어는 부모님과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선사한다.

여행의 마무리는 구름벤타에 위치한 인천의 웰니스 관광지 '차려분'을 추천한다.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함께 티소를 리에의 설명을 곁들인 K-차자리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정갈한 다과와 오션뷰를 배경으로 부모님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를 찾기에 최적이다.

● 역사 유적과 여유를 함께 즐기는 '강화도'

강화도는 유구한 역사 유적지와 자연 속 힐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고즈넉한 사할 산책과 강화 특산물들을 활용한 건강 체험을 통해 부모님께 여유로운 하루를 선물하기 좋다.

강화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화 풍물시장'은 순무김치와 약축, 속노랑고구마는 물론 밴댕이 회무침 등 강화만의 특산품과 별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매월 2일과 7일(2, 7, 12, 17, 22, 27일)에 열리는 오일장에서는 직접 재배한 농산품을 판매하는 정겨운 분위기와



위 월미테마파크, 가운데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아래 강화씨사이드리조트(강화화지).

갖 뛰겨낸 튀김, 호떡 등 풍성한 간식거리로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시장에서 차로 5분 거리인 '강화 윈도심' 일대는 고려와 조선을 잇는 역사 유적지와 명소가 밀집해 있어 부모님과 도보로 둘러보기에 최적이다. 먼저 '고려

궁지'는 물결 침력에 맞서 39년간 수도 역할을 했던 궁궐 터로, 현재는 조선시대 지어진 행궁과 유수부 동헌, 외규장각 등이 복원돼 있다. 강화의 역사를 되새기며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다.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대원성공회 강화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성당이다.

전통 한옥 외관과 서유럽 바실리카 양식의 내부가 어우러져 풍성함의 조화를 느낄 수 있으며, 성당 마당에서 내려다보는 윈도심 전망이 일품이다. 성당 바로 아래 자리한 '영종궁'은 조선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살았던 집으로, 소박한 고택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강화 윈도심 산책의 묘미를 완성한다.

천년 고찰 '전등사'는 정족산성 안에 자리해 성곽길을 따라 펼쳐지는 수려한 풍경이 일품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로, 울창한 숲과 완만한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부모님과 함께 수령 수백년의 은행나무 아래를 거닐며 산책하기 좋다. 특히 경내 전통 찻집 '죽림다원'에서 숲을 바라보며 마시는 생화차는 마음의 평안을 선사하는 필수 힐링 코스다.

여행의 마무리는 하루의 피로를 해소할 '약석원'을 추천한다. 이곳은 강화 사자발약국을 활용한 전통 좌훈과 찜질 체험을 제공한다. 황토로 지어진 고즈넉한 공간에서 온기 좌훈기에 앉아 약국의 은기를 물속 깊이 내리는 시간은 부모님께 특별한 건강 선물이 된다.

● 풍성한 즐길거리 가득한 '실내외 테마파크'

인천에는 바다를 조망하는 야외 놀이공원부터 날씨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실내 테마파크까지 다채로운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5월 한 달간 풍성한 볼거리와 이벤트로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한다.

먼저 추천하는 곳은 '월미테마파크'다. 인천 앞바다를 배경으로 타기다 디스크, 바이킹 같은 스릴 만점 놀이기구부터 발파카, 회전목마 등 어린이를 위한 시설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115m 높이의 대관람차에서는 인천대교와 서해의 섬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밤에는 화려한 야경이 더해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파라다이스시티의 실내 테마파크 '월더박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달 1일부터 6월 3일까지 카드와 별을 이용한 화려한 '마술쇼'가 매주 목·금요일과 공휴일에 펼쳐져 온 가족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또한, 7월까지 인기 캐릭터 캐치! 티니핑과 협업해 포토존 조성과 주말 상어투쇼(토·일 1일 2회) 등이 진행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다.

여유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보로로 언타오 테마파크'도 좋은 선택이다. 약 4200평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실내 테마파크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함께하는 각종 놀이시설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마련돼 있다. 특히 5월 한 달간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이 준비돼 있어 방문 전 계획을 챙겨보는 것이 좋다.

●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액티비티 여행'

활동적인 자녀와 함께라면 에너지를 발산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제격이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레일바이크부터 숲속을 가르며 질러인까지 자연 속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코스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추천하는 곳은 영종도 해안을 따라 달리는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다. 약 5.6km의 철길을 달려 타트인 바다 전망과 경관 폭포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바로 옆에 위치한 씨사이드파크에는 바다를 마주하며 머물 수 있는 카리반과 캠핑장이 조성돼 있어, 자연 속에서 오붓한 가족 캠핑까지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더욱 역동적인 즐거움을 원한다면 '강화씨사이드리조트'를 방문해보자. 1.8km 길이의 루지는 짜릿한 속도감을 선사하며, 사람이 투명해 케이블카와 회전 전망대에서는 강화해협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권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매주 토요일 야간개장을 운영해 서해의 낙조와 야경 속에서 특별한 라미팅을 즐길 수 있다.

숲속에서 스릴을 만끽하고 싶다면 '강화레포츠파크'를 추천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프인 집라인은 총 5개 코스와 구름다리로 구성돼 있어 각기 다른 속도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상 2~5m 높이의 자연목을 활용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어드벤처 프로그램과 클리밍, 고카트 등 다채로운 시설이 마련돼 있어 자녀와 함께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에 최적이다.

이밖에도 인천시투어는 5월 한 달간 순환형 노선 5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어린이 및 장애인 탑승객을 위한 기념품 증정 등 풍성한 이벤트를 이어간다.

유치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인천은 가족이 함께 여행하기 좋은 명소가 많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에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ninilbo.co.kr

